■ 타미플루 모든 약국 공급 사흘째…주민 불안 해소

억지 요구·사재기 등 '혼란' 없었다

휴일 쉬는 병원·약국 많아 불편 겪기도

모든 약국에서 타미플루 투약이 시작된 지 사흘째인 1일 대부분의 약국들은 비교적 한산한 표정이었다.

특히 투약 첫날과 이틀째까지는 모든 약국에서 타미플루를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병원의 처방전 없이도 가능것으로 착각, 무조건 타미플루를 요구하던 환자들도 사라지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날은 휴일인 탓에 대다수 병원·약국들이 문을 닫으면서 일부 환자들이 타미플루 투약을 받는 데 불편을 겪었다.

일반적으로 약국은 인근 병원에서 처방하는 종류의 약을 위주로 구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병원·약국이 문을 닫는 휴일에는 특정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더라도 그 주변 약국이 문을 열지 않아 다른 구역 약국을 방문할 경우, 일부 처방약이 구비되지 않아 투약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타미플루는 감기약과 함께 처방되기 때문에 이날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으나 병원 주변 약국이 문을 닫아 다른 동지역 약국을 찾은 환자들은 타미플루와 함께 처방된 감기약이 없다는 이유로 타미플루 자체를 투약받지 못하기도 했다. 결국 타미플루와 함께 처방전에 명시된 감기약을 보유한 약국을 찾아 전전해야 했다.

애초 동네 약국들은 타미플루를 투약받으려는 환자들이 몰려 수일 만에 보유분이 동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부분 1차 보유량(50명분)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다만 약사들이 2인 이상인 중대형 약국들의 경우 하루 평균 10명 안팎에 투약하고 있어 다음 주 초 보건소로부터 2차 보유량을 확보해야 할 상황이며, 일부 소규모 약국의 경우는 아예 단 한명의 환자도 받지 못한 곳도 있었다.

광주시 북구 문흥동 빛고을 종로약국은 투약 첫날인 지난 달 30일에는 10명의 환자가 타미플루를 받아갔으며 31일에는 5명, 사흘째인 1일에는 아직 환자를 받지 못했다.

광주시 북구 동림동 동림큰약국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위치한 탓에 30일에는 17명, 31일에는 15일, 1일에는 6명 등 비교적 많은 환자가 타미플루를 투약받아 갔다.

이 약국 김동준 약사는 "모든 약국에서 타미플루가 투약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처방전 없이 무조건 투약을 원하는 억지 환자도 사라지는 등 혼란은 없었다"면서 "다만 일요일의 경우 문을 여는 병원 주변에 위치한 약국들은 함께 문을 열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약을 구하기 위해 다른 동으로 전전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5·18 열사들 '절규' 책으로

묘지관리소 613기 '비문록' 엮어 연내 출간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된 5월 영령들의 넋이 담긴 비문(碑文)들이 한 권의 책으로 엮어진다.

1일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이하 5·18 묘지관리소)에 따르면 북구 운정동 5·18 민주묘지 내에 안장된 613기의 비문을 엮어 만든 '비문록'을 연내 출간할 계획이다.

묘지관리소는 내년 5·18 30주년을 앞두고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받아 책을 만들기로 했다.

비문록에는 5·18 희생자들의 사진과 각종 기록 등이 담기게 된다. 5·18 묘지관리소는 비문록 500권을 제작, 유가족 등 5월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 세워진 비석 뒷면에는 생전에 열사들이 남긴 글이 하나의 문장으로 새겨져 있다.

5·18 묘지관리소 관계자는 "5·18 민중항쟁 30주년 앞두고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자는 의미에서 책을 발간하게 됐다"며 "5월의 대동정신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참 〈7942〉 김종두

간호대 학생들 건강 지킴이로

광주지역 간호대학 학생들이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건강 지킴이로 나선다.

광주시교육청은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해 2일부터 25일까지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모두 295곳에서 '건강지킴이 대학생 멘토링'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멘토링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기독간호대 159명을 비롯

광주 5개 대학 369명 신종플루 예방 활동

해 조선간호대 114명, 전남대 간호대 47명, 광주여대 간호학과 40명, 남부대 간호대 9명 등 5개 대학의 369명이다.

이들은 초·중학교에 1명, 고교와 특수학교에는 각 2명씩 배치돼 등교시간에 맞춰 하루 2시간씩 발열체크와 예방수칙 교육 등의 활동을 펼친다. 광주시교육청은 "발열체크 등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세심한 신종플루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일장기를 향해 던져라!' 재현 1일 학생독립운동 80주년을 기념해 광주고보·일인(日人)야구사건을 재현한 '일장기를 향해 던져라!'가 열린 광주제일고 운동장에서 양팀 선수들이 당시 그라운드에서 발생했던 몸싸움을 하고 있다. 한·일 야구 사건은 1924년 6월 광주고보팀이 일인 선발팀과의 경기에서 일본인 심판의 편파 판정과 일본인 단장의 폭력에 항의해 동맹휴학을 결행한 것으로, 1929년 학생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승용차 인도 돌진·철도건널목 옆 추돌사고

광주·전남 휴일 3명 사망

11월 첫째 주 휴일인 1일 광주·전남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 3명이 숨졌다.

1일 오후 5시께 광양시 광양읍 덕례사거리 철도건널목 옆 도로에서 A(23)씨가 몰던 SM5 승용차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마티즈에 타고 있던 50대 남·여 2명이 숨지고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6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광천 2교 옆 인도를 걷던 A(42)씨가 만취 운전자 B(28)씨의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차를 몰고 광천터미널 방향으로 가던 중 갑자기 인도로 돌진, A씨를 치었다. B씨는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지방선거 벌써 '혼탁'

여수시선관위, 시장 입후보 예정자 등 3명 고발

전남 위반 100건 넘어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2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여수시장 입후보 예정자 등 3명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1일 여수시 선관위에 따르면 여수시장 입후보 예정자 A씨와 여수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B, C씨는 지난 8월 30일 열린 민주당 당원 행사에서 선거구민 20~30명에게 술과 안주, 노래방비 등 41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이미 100건을 넘어섰다"며 "불법·혼탁 선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품·향응 제공 행위를 철저히 감시·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객선서 50대 투신 자살

지난달 31일 오후 6시께 여수시 남면에서 여수항으로 향하던 K고속 페리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50대 남성이 바다에 투신해 숨졌다. 여수해경은 이 남성이 "투신 전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영광서 어선 화재 선원 2명 사상

지난달 30일 밤 11시께 영광군 홍농읍 계마항에 정박 중이던 영광군 선적 9t급 연안자망어선 S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조타실에 있던 선원 박모(39)씨가 숨지고, 선원실에 있던 또 다른 박모(44)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목포해경은 "조타실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동료 선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광주 총경급 2명 감찰 조사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 2명이 최근 경찰청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총경급 간부 2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자는 광주 모 경찰서장과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모 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찰 조사내용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한 달 전부터 감찰 얘기가 나돌긴 했지만 아직까지 비위사실이 밝혀진 것은 없다. 일상적인 감찰 활동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한전 "까치 잡아 용돈 버세요"

쌍나팔

○…한국전력이 본격적인 수렵철을 맞아 정전 사고의 주범인 '까치와의 전쟁'을 선포해 눈길.

○…1일 한전 강진지점에 따르면 최근 수렵장 개장에 발맞춰 11월 중순부터 전력설비 유해조수인 까치를 잡아오는 수렵인 등에게 마리당 3천500원의 수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강진지점은 또 까치집을 최초 신고한 사람에게 5천원을 지급하는 등 수렵장 개장에 따른 까치 포획 수위를 높여 지난해(1만여마리)보다 많은 까치를 잡을 계획.

○…한전 관계자는 "까치는 전봇대 주위에 둥지를 틀어 전력선 단선이나 정전 사고 등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며 까치로 인한 고통을 호소.

/강진=남철희기자 choul@